

『일리아스』와 『오딧세이아』에 나타난 춤 의미 연구

김 말 복*

- | | |
|---------------------------|---------------------------------|
| I. 들어가며 | IV. 『일리아스』와 『오딧세이아』에 나타나는 춤의 의미 |
| II.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딧세이아』 | V. 나가며 |
| III. 호메로스의 문체와 수사 | 참고문헌 |
| | Abstract |

I. 들어가며

호메로스(Homer, Homeros)의 『일리아스』(*Ilias*)와 『오딧세이아』(*Odysseia*)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문헌중의 으뜸으로 대표적인 서양 문학작품이라 할 수 있다. 구술되어오던 호메로스의 두 서사시가 문자화 되는 것은 기원전 8세기쯤이다. 기원전 8세기에 들어 흩어진 텍스트들에 대한 정리와 표준화시도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학자들 사이에 호메로스의 활동시기에 대하여 이견은 있지만 오늘날 그가 기원전 8세기 말에서 7세기 초에 활동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 시기는 서양사상사에서 철학이란 명칭은 물론이고 문학이라는 개념조차 나타나지 않았던 시기이며 서양 최초의 철학자라 불리어지는 자가 탄생하기도 몇 세기 전의 일이다. 따라서 엄밀하게 이 작품을 문학이라 부르기에는 너무나 협소한 의미이고 이들 작품은 그리스 정신의 출발점이자 서양 고전 문학의 원천을 보여주는 일종의 교과서라 할만하다. 천병희는 호메로스의 작품들이 그리스 시대 ‘인간의 삶과 인간정신에 대한 총체성 구현’¹⁾뿐 아니라 그리스 세계를 놀라운 정도로 총체적으로 그리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구인들에게는 유대인의 성서처럼 그리스 정신 그 자체를 담고 있는 원석과 같은 작품인 이들 두 편의 영웅 서사시에 나타나는 춤의 의미를 살펴보고 그리스 정신의 근원에서 춤의 위상을 가늠해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몇 세기이후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전개되는 그리스 무용사상의 전조로서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리아스』와 『오딧세이아』는 역사상 가장 오래되었다는 사실 외에도 그 길이에서도 정말 손꼽힐 만큼 규모가 방대하여 가히 적수가 없을 정도이다. 각기 24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두 편의 영웅서사시는

* 이화여자대학교 무용과 교수, eos@ewha.ac.kr.

1) 호메로스, 『오딧세이아』, 천병희 역(2015b), (서울: 숲), p.21.

각각 약 1만 5,000행과 1만 2,000행의 길이를 자랑하고 있다. 이 두 서사시에는 이들의 방대한 스케일에 비하자면 그 양은 많지 않지만 전쟁과 방랑, 모험 이야기 속에서 예상치 못한 춤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는데 이들 춤의 활동이나 춤의 비유가 생사를 가르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출현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들의 서사에서 암시하고 있는 춤의 의미가 무엇일가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시사점을 지니고 있어 연구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들 두 영웅서사시에 나타는 춤이라는 용어 그리고 춤과 관련된 언어표현과 춤 활동 그리고 이들 춤과 관련된 용어나 활동들이 출현하는 맥락, 서사표현에서 무도장, 무도회 등 춤과 관련된 형용어의 사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이에 함축된 춤의 의미를 추론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은 3천여 년 전에 형성된 『일리아스』와 『오딧세이아』 작품의 영향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연구 역시 오늘날에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인데 놀라운 일이다. 이미 그리스 문학의 시작이자 완성으로 높이 칭송받던 『일리아스』와 『오딧세이아』는 중세부터 널리 인기리에 암송되고 있었으며 15세기에 당대 유럽의 학문 어인 라틴어와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기 시작하면서 학교 기초교과목으로 자리 잡게 되고 널리 읽히게 되었으며 유럽 상상력의 근간으로 자리 잡게 된다. 이후 일리아드와 오딧세이의 주제와 모티프는 문학과 예술 그리고 철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일리아드와 오딧세이의 이야기는 셰익스피어(W. Shakespeare)의 희극에서부터 베르디(C. Monteverdi)의 오페라, 엘리엇(T. S. Eliot)과 로버트 브라우닝(R. Browning)의 시 그리고 조이스(James Joyce)의 동명 현대소설 등에 플롯과 주제적인 모티프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컨템포러리한 해석은 뮤지컬과 영화 등에서도 지면이 모자라 다 소개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리고 현재 철학적으로도 이들 작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²⁾ 그 철학적 영향은 프랑스 현대 철학자인 레비나스(E. Levinas)의 후기 저작 『존재와 다르게』(*Autrement Qu'êtré de L'essence*, 1974)에서도 다루어지며 프랑스 현대철학에까지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제까지의 호메로스와 그의 두 서사시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호머의 실체에 대한 논란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³⁾ 그 외 이들 소설에서 나타나는 비극의 패턴에 대한 연구⁴⁾, 이들 영웅적 인물들의 특성과 신들에 대한 연구⁵⁾, 그리고 현대철학에서의 다양한 확장적인 논의⁶⁾ 등이 있다. 하지만 무용과 관련하여 호머나 그의 두 영웅서사시에 대한 연구가 현재까지 국내외적으로 행해진 적이 없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독창성을 지닌다 하겠다. 본 연구는 호메로스 그리스어 원전 번역으로 유명한 천병희의 책을⁷⁾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호머가 직접 사용한 이오니아식 고대 그리스어 원전의 의미에까지는 미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2) R. B. Rutherford(1986), *The Philosophy of the Odyssey*, *The Journal of Hellenic Studies* 106, pp.145-162.

3) M. L. West(1999), *The Invention of Homer*, *The classical Quarterly* 49(2), pp.364-382.

4) Yoav Rinon(2008), *A Tragic Pattern in the Iliad*, *Harvard Studies in Classical Philology* 104, pp.45-91.

5) 김현(2013), 아테테를 어떻게 이해해야할 것인가?-호메로스로부터 아리스토텔레스까지, 『비교문학』 61, pp.39-71; 김한(2013), 『일리아스』에 나타난 호메로스 신들, 『영어권 문화연구』 6(1), pp.107-130; 정준영(2012), 서사적 지평에서 바라본 호메로스적 아테(ate)-『일리아스』를 중심으로, 『서양고전학연구』 48, pp.5-48.

6) 서동욱(2013), 그리스인의 환대-손님으로서 오딧세우스, 『철학논집』 32, pp.39-70.

7) 호메로스, 천병희 역(2015a), 『일리아스』 (서울: 숲); 호메로스, 천병희 역(2015b), 『오딧세이아』 (서울: 숲).

II.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딧세이아』

호메로스는 ‘실질적으로 그리스를 가르쳤다’라고 플라토가 자신의 책에서 얘기할 정도로 그의 서사시는 그리스 문화와 교육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호메로스가 실제로 생존한 인물인지? 아니면 상상의 인물인지? 아니면 한 유파의 시인집단을 대변하는 가공의 사람인지? 살았다면 과연 언제 어디서였는지 등 그의 이력에 대하여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 어느 주장도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관계로 여전히 끝없는 ‘호메로스 문제’로 남아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계속 두 작품의 저자로 호메로스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으며 두 서사시 중 좀 더 위대하다고 평가되는 『일리아스』에 대해서 좀 더 확신 있게 그의 저작임을 굳게 믿고 있다. 이런 정황을 낱게 된 이유로 여러 사실들이 있는데 우선 ‘호메로스’(Ομηρος)라는 이름이 일반적으로 쓰이는 그리스인 이름이 아니고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그 뜻은 ‘인질’(hostage)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또 이에 대하여 어느 마을에서 인질로 교환되어 그리 이름지어 졌다는 다양한 설명들이 있다. 로마제국에 이르러 ‘호메로스’라는 이름은 좀 더 자주 사람이름에 쓰이게 되는데 그럴 경우 그 의미는 ‘해방자유인’(freedman)⁸⁾이었다.

호메로스라는 이름이 문헌에 처음 발견되는 것은 기원전 7세기의 일인데 거기서 그는 『일리아스』나 『오딧세이아』가 아니라 지금은 사라진 *Thebaid*의 저자로 언급되고 있다. 그리고 문학과 예술속의 증거에 따르면 기원전 630년경부터 『일리아스』가 유포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호메로스의 실체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호머리데’(Homeridae)라고 불리는 음유시인 집단이 있었다. 호머리데란 용어는 BC 485년 그리스 서정시인 핀다로스(Pindar)의 시에서 처음 언급되는데 그 의미는 고전 그리스어로 ‘호메로스의 후예’(descendants of Homer)를 뜻한다. 기원전 6세기말에서 5세기와 4세기 초까지에 걸쳐 이들의 존재를 증거 하는 문헌언급들이 많은데 이들은 호메로스의 시를 낭송하는 일종의 음유시인 길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기록과 옥스퍼드대 명예교수였던 마틴 웨스트(M. L. West)를 비롯한 다수 연구자들의 견해는 이들이 호메로스와 혈연관계를 지닌 자들은 아니며 호메로스의 시뿐만 아니라 당대 잘 알려진 시나 자신들의 자작시도 호메로스의 이름으로 소개하지 않았을까 추론한다. 플라토는 자신의 책 『공화국』(*Republic*)에서 호머리데는 호메로스의 업적과 명성을 널리 알리는 자들⁹⁾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기원전 6세기말경 아테네 참주(527~514BC)였던 히파르코스(Hipparchus)가 판아테나이아축제(Great Panathenaia, 19 August 522B.C.¹⁰⁾)에서 『일리아스』와 『오딧세이아』 전편을 4일에 걸쳐 음유시인들이 팀을 이루어 릴레이 낭송하도록 하는 전통을 세우면서 이들의 활약은 풍부한 기록들을 남기고 있다. 호머리데들은 자신들이 호메로스라 불리는 과거의 위대한 장님 시인으로부터 이름을 물려 받았지만 집단적으로 직계후손이라 주장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이들은 일종의 ‘호메로스학파’(school of Homer)라 보는 것이 옳고 당대 수세기동안 장님들의 선호하는 직업이 음유시인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설명은 설득력이 있기도 하다. 하지만 호메로스의 두 작품은 엄청난 길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자 기록이나 초고 없이 전체를 외워서 암송한다는 것은 누구라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호메로스가 장님이라는 주장 역

8) 노예 신분에서 해방된 사람

9) M. L. West(1999), p.367.

10) 웨스트는 전아테네 축제가 이날 시작되었다고 주장한다. M. L. West(1999), p.382.

시 근거가 희박하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 결론적으로 호메로스의 가족이 아닌 호메리테의 존재자체가 호메로스가 실제 인물이 아니라 가공의 인물이라는 입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아테네축제에서 호메로스의 두 서사시가 암송되기 시작하면서 호메로스라는 시인의 명성과 그의 실체에 대한 믿음은 공고해지고 많은 학자들이 그의 성과를 칭송하며 명성은 더 널리 퍼지게 되었다. 그리고 덕분에 『일리아스』와 『오딧세이아』가 고대 그리스의 영웅서사시 중에 유일하게 온전히 남아있을 수 있게 되었는지 모른다. 하지만 또 다른 ‘호메로스문제’는 이 두 작품이 모두 호메로스의 저작인가에 대하여 ‘분리론자’와 ‘통합론자’들의 입장이 나뉜다. 최근의 웨스트와 하버드대 나지(G. Nagy) 교수 등은 두 서사시에 쓰이는 서술방식이나 용어, 도덕관과 신에 대한 태도, 지리적인 관점, 가치관, 사교방식 등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도저히 동일한 사람의 작품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 역시도 오늘날까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일리아스』의 배경은 트로이(Troy, Ilium)¹¹⁾전쟁인데 그리스 연합군에 의한 트로이의 십년간에 걸친 포위이야기이다. 서사시가 전개되는 시간은 10년 전쟁의 마지막 해 트로이 성 함락직전의 몇 주에 불과하지만 플롯구성에서 그리스의 여러 전설들을 이야기 속에서 끌어들이 전쟁의 원인과 이야기가 끝나는 직후 다가올 아킬레스(Achilles)의 죽음과 트로이성의 함락을 예견하며 끝난다. 트로이전쟁은 트로이왕자 파리스(Paris)가 스파르타에 왔다가 스파르타 왕 메넬라오스(Menelaus)의 아내 헬레네(Helene)와 사랑에 빠져 함께 트로이로 달아나 버리면서 십년간의 기나긴 전쟁이 발발하게 된다. 직접적인 이야기의 시작은 전쟁 마지막 10년째 되는 해 그리스 연합군의 총사령관 아가멤논과 가장 용맹한 그리스군 장수인 아킬레스가 전리품 분배문제로 말다툼 끝에 아킬레스가 전투 참여를 거부하게 되고 그 와중에 일어난 아킬레스의 죽마고우이자 시종인 파트로클로스(Patroklos)의 죽음에 대한 아킬레우스의 분노로 시작된다. 결국 아킬레우스가 트로이의 가장 용맹한 장수 헥토르(Hektor)를 죽인 뒤 원한과 슬픔을 잊고 헥토르의 아버지 프리아모스에게 헥토르의 시신을 내주는 장면에서 이야기는 끝난다.

『일리아스』란 ‘일리아스의 노래’ 혹은 ‘트로이의 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웨스트는 ‘일리오스에서 불려지고 있는 시’(the poem current at Ilios: 트로이의 옛 이름)라는 제목의 의미자체에서 이미 이 작품이 원래 원저자를 알 수 없는 익명이었다 라는 추론을 주장한다.¹²⁾ 또한 아테네의 수사학자이자 웅변가였던 이소크라테스(Isocrates)가 호메로스의 생애와 호메리테에 대해 말하면서 ‘헬레네가 호메로스의 꿈에 나타나 트로이전쟁에 대한 시를 짓도록 지시하였다’¹³⁾고 한다. 진위여부는 차치하고라도 이런 고백은 호메로스자신도 당당하게 자신이 원 저작자임을 주장하지 못하고 제우스의 딸이라는 헬레네의 지시 하에 즉 신적인 간섭에 의해 만들어졌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사실로부터 유추해 볼 수 있는 사실은 플라토가 자신의 최초의 철학적 이론들을 그리스 당대인들이 일반적으로 믿던 상식을 체계화했던 것처럼 두 영웅 서사시도 당시 일리오스에서 회자되고 있던 누구나 아는 이야기를 호메로스나 호메리테들이 일련의 체계를 갖춘 이야기로 정리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플라토 시기에 시나 음악이 인간이 창작하는 것이 아니라 뮤즈여신의 지시에 따라 제작된다 믿었던 그리스인들의 사유체계에서 그보다 몇 세기 전에야말로 그걸 인간 아무개가 지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

11) 고대 Troy의 라틴어 이름.

12) M. L. West(1999), p.366.

13) 앞의 글, p.367.

기 때문이었을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트로이전쟁의 역사적 사실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는데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 전쟁의 역사적 사실에 대해 의구심이 없었지만 19세기의 역사연구에서 그 사실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었고 이에 1871년 독일 고고학자 하인리히 슐리만(H. Schliemann)의 터키에서의 트로이유적 발굴성공으로 그 역사적 근거를 인정받게 되었다.

『오딧세이아』는 10년에 걸친 트로이전쟁이 끝난 뒤 이타케(Ithake)의 왕 오딧세우스(Odysseus)가 고향 이타케로 돌아오는 10년간에 걸친 모험과 방랑의 이야기이다. 이 작품은 『일리아스』의 속편으로 『일리아스』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서양문학작품이고 『오딧세이아』는 두 번째로 오래된 것이다. 『일리아스』가 신들이 많이 등장하고 신의 아들이거나 비범하고 용맹한 영웅들의 전쟁담을 다루고 있다면 『오딧세이아』는 신들의 등장이 적어지며 상대적으로 현세로 내려앉은 배경에서 이상야릇하고 재미있는 환상적이고 기이한 얘기가 펼쳐지는 기담 서사시이다. 따라서 두 작품이 주는 재미가 달라 요즘 식으로 말하자면 같은 장르에서도 세부분류가 다르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일리아스』에 대하여는 그 역사적 사실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지만 『오딧세이아』는 기담체이기에 그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다. 전체구성도 비선형적으로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독립적인 이야기들이 옴니버스식 장면 구성으로 이어진다.

이 작품에서 오딧세우스는 현명하고 지혜롭고 참을성 많고 언변에 능하면서 동시에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비정하고 약삭빠른 인물로 그려진다. 『일리아스』에서 호메로스가 트로이전쟁의 사건을 50일에 불과한 기간만을 다루면서 얘기하고 있듯이 『오딧세이아』 역시 ‘20년에 걸쳐 있었던 일을 단 40일로 압축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1인칭 소설의 기법을 쓰고 있다.’¹⁴⁾ 호메로스는 전쟁 전체에서 한 부분만을 다루면서 그 외 많은 사건들은 삽화로 이용하고 있다. ‘오디세우스(Odysseus)’란 이름은 그리스어로 골치거리(trouble)를 뜻한다. 오딧세우스가 귀향하는 길에 제우스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외눈박이 거인족 폴리페모스(Polyphemus)를 계략을 써서 그의 하나뿐인 눈을 멀게 하고 탈출에 성공한다. 이에 폴리페모스가 자신의 아버지 포세이돈(POSEIDON: 바다의 신)에게 양갓음을 청원하고 이에 격노한 포세이돈이 오딧세우스의 귀향을 그리 오래 걸리게 한다. 한편 오딧세우스의 집에서는 오딧세우스가 죽은 줄 알고 그의 아내 페넬로페(PENELOPÉ)에게 108명의 구혼자들이 청혼하며 오딧세우스의 궁전에서 먹고 마시며 그의 재산을 축내고 있었다. 결국 육지와 바다의 기이하고 사악한 괴물들로 인해 온갖 고통을 겪으며 거친 풍랑으로 객지를 떠돌다 천신만고 끝에 집에 돌아온 오딧세우스는 이제 20살 성인이 된 아들 텔레마코스(TELEMACHOS)와 함께 구혼자들을 모두 죽이고 자신의 권리를 되찾는다.

III. 호메로스의 문체와 수사

호메로스의 두 서사시는 ‘호메로스식 그리스어’(Homeric Greek)라 불리는 독특한 언어로 쓰였다. 호메로스식 그리스어는 ‘서사시체 그리스어’(Epic Greek)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는 서사시외에 다른 곳에서는 쓰이지 않는 독특한 문어이다. 이들 서사시체 그리스어로 호메로스와 그보다 1세기 뒤에 활동한

14) 천병희(1981), 호메로스의 작품과 세계, 『독어문학』 26(1), p.210.

헤시오도스(Hesiodos)의 서사시들이 쓰여 졌기 때문에 이 언어에 서사시체란 형용어가 붙게 되었다. 이들은 낭송시 장단단식으로 운율을 넣어 듣기 좋게 만든 6보격의 육절운율(hexameter)로 쓰이는 특징을 지녔다. 호메로스 그리스어는 이오니아(Ionia)¹⁵⁾식 방언이 주가 되면서 일부 아이올리스(Aeolis)방언도 포함된 것으로 호메로스의 두 서사시와 호메로스적 찬가들이 주로 이 독특한 문어로 쓰여 졌다.

그리스에 최초의 그리스어 알파벳이 도입된 것이 기원전 8세기 초이다. 그리고 학자에 따라서는 호메로스의 생존 시기를 기원전 12세기까지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직 그리스인들에게 문자 언어가 없고 문자의 사용이 생활화 되지 못한 상황에서 호메로스의 서사시들이 유통되고 있었다. 따라서 호메로스의 서사시는 근본적으로 낭송자의 입에서 귀로 전달되던 전통을 지녔다. 그러므로 낭송되던 두 서사시의 텍스트를 문자로 고정하거나 문자화 한 것이 호메로스 자신이 처음이 아닐지도 모른다. 하지만 짐작해볼 수 있는 것은 국가적인 판아테나이아 축제에서 『일리아스』와 『오딧세이아』가 여러 명의 음유시인 팀들에 의해 연속 구술되면서 일종의 텍스트의 고정이나 검증이 요구되지 않았을까 하는 점이다. 호메로스 당시의 텍스트는 시인들이 낭송할 때 참조할 정도의 간단히 요지만 기록해두는 정도이고 실제 낭송 공연에서 시인의 창의적이고 즉흥적인 구술로 유동적인 변화를 지녔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렇듯 구전되어오던 전통의 호메로스의 서사시가 일종의 통일된 텍스트로 문자화 되는 것은 기원전 2세기 알렉산드리아의 학자 아리스타르코스(Aristarchos)에 의해서다. 그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소장된 여러 텍스트와 아테나의 것들을 비교 검토하여 “자신이 생각하기에 바르다고 믿는 교열본을 만들었는데, 바로 이것이 현존하는 호메로스 필사본들의 원형인 것으로 추정된다.”¹⁶⁾

호메로스의 서사시는 각기 다른 세기에 쓰여 많은 시간적 차이를 지닌 그리스 이오니아식 방언과 아이올리스 방언을 함께 쓰고 있다. 그리하여 어둡고 무거운 장면에서는 옛 말인 아이올리스 방언을 써서 엄숙함과 위엄 있는 분위기를 살리고 신랄한 감정싸움과 같은 장면에서는 발랄한 구어에 가까운 이오니아 방언을 써 서사시의 위엄과 생동감을 두루 갖추는 문체적 특징을 지닌다. 그리고 호메로스 서사시의 두드러진 특징은 문장의 시작과 끝 그리고 새로운 챕터를 시작할 때 그리고 특정 인물을 수식하고 소개할 때 명함이나 라벨처럼 상투적인 문구나 형용사가 빈번히 반복된다는 점이다. “훌륭한 정강이받이를 댄” 이카이오이족, “걸음이 날랜” 아킬레우스, “빨리 달리는” 함선처럼 정형적인 상투문구들을 형용어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비록 아킬레우스가 막사에서 쉬고 있을 때나 배가 해변에 정박해 있을 때조차도 그런 상투 문구들로 수식한다. 이는 서사시가 구술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육보법의 운율의 법칙을 지키기 위해 초래되는 결과라 생각한다. 즉 시의 행을 시작할 때 그리고 끝낼 때 시행 전체 혹은 하나의 단락이나 구 전체를 그대로 단어 하나 틀림없이 그대로 끌어온다. 이는 익숙함과 안정감을 가져오는 효과를 낳는다.

호메로스의 수사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어느 사태나 장면묘사에서 너무나 일차적이고 감감적이고 현실적이라 너무나 생생한 인상을 준다. 전쟁터에서 아킬레우스가 칼로 적의 목을 치자 “척추에서 골수가 솟아 나오고” 창으로 헥토르의 동생 폴뤼도로스의 등을 찔러 “창끝이 배꼽 옆을 뚫고 나오자 쏟아 나오는 내장을 손으로 움켜쥐며” 죽어간다(『일리아스』 20권, 신들의 전투). 아이아스의 창은 적의 한쪽 귀에서 반대편 귀로 관통하여 찌르고, 쇠골 한복판을 찌른 “청동 창끝이 곧장 뚫고 들어가 어깨 아래쪽으로 밀

15) 따라서 호메로스가 이오니아지방 출신이라고도 한다.

16) 호메로스, 천병희 역(2015a), p.643.

고 나오자..내장이 쏟아져 나온다”, 머리를 내리친 창끝에 투구가 박살나자 “상처에서 창목을 따라 피투성이가 된 뇌가 쏟아져 나왔다”(『일리아스』 17권, 메넬라오스의 무훈). 그리고 바다의 묘사는 “짠 바다”, “추수할 수 없는 바다”, “축축한 길”, “포도주 빛 바다” 등 감각적인 인상을 적극 표현해 준다.

본 연구자가 호메로스의 수사 표현에서 가장 관심 있게 주목한 점은 미인이나 영웅의 아름다움 혹은 신체적 매력을 표현하는 방식이었다. 헬레네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며 트로이전쟁의 발단이 되는 미인이다. 파리스가 헬레네와 사랑에 빠질 수 있었던 것은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라고 쓰인 황금 사과를 헤라나 아테네가 아니라 아프로디테에게 준 대가이다. 아프로디테는 황금사과를 자신에게 주면 파리스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하게 해 주겠다’는 조건을 내건 것이다. 문제는 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의 조건에 ‘미혼’이라는 전제조건이 붙어있지 않아서 헬레네가 이미 스파르타 왕 메넬라오스와 결혼한 유부녀였던 관계로 그리스 연합군이 그녀를 되찾기 위해 벌인 전쟁인 것이다. 따라서 그녀는 경국지색정도가 아니라 요즘의 세계대전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미모를 지녔다. 현대 호메로스의 서사시에서 그녀는 ‘흰 팔의’ 헬레네, ‘고귀한 긴 옷의’, ‘머리결 고운’ 헬레네 등으로 형용되고 있는 한편 아킬레우스가 아가멤논에게 자신이 사랑하는 미인 브리세이스(Briseis)를 뺏겨 그의 전쟁 불참 선언을 하게 만든 또 다른 대단한 미인은 ‘볼이 예쁜’ 브리세이스, ‘머리결 고운 소녀’ 브리세이스, ‘황금의 아프로디테와도 같은’ 브리세이스로 묘사된다. 그 외 미인으로 칭송하는 형용어로는 ‘복사빠가 이쁜 마르펫사’¹⁷⁾, ‘예쁜 허리띠를 맨 여인들’¹⁸⁾, ‘머릿결 고운 테티스’¹⁹⁾, ‘번쩍이는 머리띠의 아름다운 카리스’²⁰⁾처럼 결코 이들의 신체 형태를 묘사하고 있지 않은 점이였다.

요즘 여성의 아름다움이나 매력의 묘사라면 ‘170센티, 50킬로의 늘씬한 신체조건에 보라색 눈동자와 은빛색이 감도는 금발에다 볼륨감있는 에스라인’처럼 신체 형태나 색, 길이, 라인 등을 형용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서사시에서는 볼이 이쁜 것도 머리띠가 예쁜 것도 나의 주관적 판단이지 그녀 신체의 실제 형상의 묘사는 아닌 것이다. 아름다운 여성과 관련하여 형용어가 등장하는 빈도나 문맥에서 가장 아름다움을 강조하는데 밀접히 쓰이는 것은 머리띠와 허리띠였다. 그러니 이쁜 여인들을 묘사하는 방식이 낫달이 오뚝하거나 턱 선이 날렵해서가 아니라 이쁜 머리띠와 긴 옷을 걸치고 번쩍이는 허리띠를 하고 있다고 신체와 접촉한 대상을 지시한 체 넌지시 표현한다. 그중에서도 으뜸은 허리띠인데 그 증거는 헤라가 수세에 몰린 그리스 군을 도우기 위해 제우스를 유혹하는 장면에서 나온다. 트로이전쟁에서 그리스 군이 위기에 처하자 트로이군을 도우는 제우스를 저지하고자 헤라는 제우스를 유혹해서 잠들게 하려고 작정한다.

헤라는 아프로디테와 가장 아름답은 여신 타이틀 경쟁을 벌였을 만큼 미인인데 ‘흰 팔의 여신’, ‘황소 눈의 존경스러운 헤라’, ‘황금 옥좌의 빛나는 눈의 여신’이라 묘사되고 있다. 하지만 제우스를 위한 요란한 몸치장은 3쪽(pp. 411~414)에 걸쳐 묘사된다. 요약하자면 ‘신들만이 쓰는 부드럽고 향기 그윽한 올리브유를’ 몸에 바르고 ‘아름답고 향기롭고 반짝이는 머리털’을 땀은 뒤 ‘정교하게 아로새긴 향기로운 의상’을 몸에 두르고 ‘백 개의 술이 달린 허리띠’를 두른 다음 귀걸이, 면사포를 쓰고 아름다운 샌들을 신은

17) 호메로스, 천병희 역(2015a), p.278.

18) Ibid., p.270

19) Ibid., p.142.

20) Ibid., p.544.

다음 아프로디테에게 매혹의 허리띠를 빌려 달라 청한다. 이에 ‘웃음을 좋아하는 아프로디테’는 “그녀의 가슴에서 다채롭게 수놓은 띠를 풀었다. 그 안에 그녀의 모든 매력이 들어 있으니 그 안에는 곧 애정과 욕망과 아무리 현명한 자의 마음도 호리는 사랑의 밀어와 설득이 들어”²¹⁾ 있다. 이 ‘다채롭게 수놓은’ 아프로디테의 띠를 품에 간직하면 “마음먹은 일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오는 일은”²²⁾ 없다고 한다. 그리하여 아프로디테의 띠를 가슴에 품은 헤라는 제우스를 사랑에 빠지게 하는데 성공한다. 이렇듯 애정과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매력의 정점을 미의 여신의 허리띠에 깃든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헤라의 몸치장의 순서와 아프로디테의 언급을 종합해보면 미의 가장 오묘하고 깊은 경지가 바로 허리띠에서 마무리됨을 알 수 있다.

남성들의 경우 그가 얼마나 영웅적이고 멋있는지 역시 그의 신체 형상묘사가 아니라 그가 착용하고 사용하는 아름다운 무구와 방패를 설명하는 것으로 표현한다. ‘찬란히 번쩍이는 투구’, 가장자리를 황금 못으로 여민 ‘아름다운 청동 방패’, ‘아름다운 무구’, ‘청동 갑옷’, ‘번쩍이는 방패’, ‘정교하게 만든 가슴 받이’, ‘찬란히 빛나는 가슴 받이’ 등이 뛰어난 전사를 수식하는 수사인데 이는 단지 형태적 묘사가 아니라 하나의 정형화의 암시가 있다. 즉 가장 좋고 가장 큰 방패 혹은 훌륭한 창은 그에 상응하는 뛰어난 자가 지닐 자격을 가진다. “훌륭한 것(방패, 투구²³⁾)은 훌륭한 자가 입고 못한 것은 못한 자에게 주어졌다.”²⁴⁾ 『일리아스』 제10권 ‘들론의 정탐’에서 트로이군의 레소스를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그의 말들은 내가 본 중에 가장 아름답고 컸으며… 그의 거대한 황금무구들은 보기에도 장관이었습니다. 그런 무구를 입고 다닌다는 것은 불사신들에게나 어울릴까 필멸의 인간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²⁵⁾ 즉 훌륭하고 아름다운 무구를 가진 이는 당연히 아름다운 인간임을 지시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으뜸은 아킬레우스의 방패이다. 아킬레우스가 브리세이스 때문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사이 그리스 군이 위협에 빠지자 그의 절친이자 시종인 파트로클로스가 적군이 보기만 해도 두려워하는 아킬레우스의 무구를 입고 나가 싸우다 죽자 이의 보복을 위해 트로이군을 치러간다. 이를 위해 아킬레우스의 어머니 테티스가 금속공예의 신이 헤파이스토스(Hephaistos)에게 무구제작을 의뢰하는데 그중에서도 아킬레우스의 방패는 그의 걸작으로 얘기된다. 제18권 무구제작이 그 이야기인데 완성된 방패의 형상에 대한 설명이 7쪽에 걸쳐 묘사되고 있다. 이는 역으로 아킬레우스가 얼마나 용맹하고 뛰어나며 아름다운 영웅임을 얘기해주는 수사가 된다. 그 방패에 그려진 그림에 대한 묘사 중에 “처녀들은 아름다운 화관을 썼고 총각들은 은띠에 매달린 황금 칼을 차고 있었다”²⁶⁾라는 언급이 나오는데 이들은 춤을 추고 있었다.

21) 호메로스, 『일리아스』 14권 제우스가 속임을 당하다, pp.413-414.

22) Ibid., p.414.

23) 괄호 앞은 연구자의 첨사

24) 호메로스, 『일리아스』 14권 제우스가 속임을 당하다, p.421.

25) Ibid., p.305.

26) Ibid., p.553.

IV. 『일리아스』와 『오딧세이아』에 나타나는 춤의 의미

『일리아스』와 『오딧세이아』는 영웅서사시이므로 이 서사시에서 춤을 추는 주체는 주로 영웅들이다. 호메로스의 작품세계에서 영웅이란 보통 사람의 지위와 신의 지위사이의 중간자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스인들은 “보통 인간의 수준을 넘어서는 모든 힘은 신으로서, 최소한 부분적으로 신적인 것으로 생각되고 있었다.”²⁷⁾ 따라서 당대 그리스인들은 보통 사람의 수준을 넘는 사람들은 모두 일종의 신성을 지닌 것으로 생각했고 따라서 이들을 숭배하고 영웅이라 불렀다. 이 두 서사시에 나오는 주인공들 중에는 사실 다양한 신의 아들, 딸들이 많다. 그리스의 가장 용맹한 장수 아킬레우스는 바다의 여신 테티스의 아들이고 헬레네는 제우스의 딸이다. 그리고 『일리아스』와 『오딧세이아』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그리스와 트로이 인근지역의 왕들과 귀족자제로서 으뜸가는 전사들이다. 『오딧세이아』에서 오딧세우스의 아내에게 구혼하는 자들은 모두 “이곳에서 가장 훌륭한 분들의 사랑하는 아들들”²⁸⁾이다. 그리고 이 책들은 ‘고대 그리스인들의 사회에서 교육의 실천과 교육방법의 주요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되기도 했다.’²⁹⁾ 따라서 이 서사시에서의 춤의 활동이나 춤과 관련된 서사는 인간적 차원이 아니라 인간을 지배하는 우월한 힘을 지닌 영웅들의 활동으로서 그리고 숭배대상으로서 본받아야 할 삶의 모델로서 당시 받아들여졌다는 점을 감안하고 이들 서사속의 춤이 함축하는 의미를 받아들여야 한다.

‘춤’이라는 용어가 명사나 동사의 형태로 『일리아스』에 언급되는 경우는 총 11회이며 춤과 관련된 ‘무도장’이 3회, ‘무도회’가 1회 등장 한다.³⁰⁾ 반면 『오딧세이아』에서는 ‘춤’이 명사나 동사형으로 총 15회 그리고 ‘무도장’이 11회, ‘무용수’가 2회 나온다.³¹⁾ 두 서사시간의 저작시기가 50년 정도 차이가 난다고 얘기되어지지만 춤이 언급되는 맥락과 삶의 역할은 상당한 차이가 난다. 『일리아스』에서 춤의 언급은 전사들이 직접 추는 표현은 없고 생사가 절실히 걸린 전쟁터에서 영웅과 신들의 대화 속에서 춤은 신이 인간에게 부여하는 일종의 아레테 혹은 전사로서의 탁월함 혹은 귀족적 탁월함을 지시하는 대상으로 언급된다. 아레테(aretê)란 그리스어로 좋음(좋은 것)을 뜻하는 어원(agathon)에서 유래하는데 “‘이레테’는 원래 특정한 기능이나 분야에서 능력이 ‘ 좋음’, ‘ 훌륭함(goodness)’, ‘ 탁월함(excellence)’을 뜻하며, 반대로 ‘카키아’는 그런 능력이 부족한 상태 즉 ‘ 나쁨’(badness), ‘ 결함’, ‘ 모자람(defect)’을 뜻한다.”³²⁾ 그러므로 아레테란 삶이나 인간으로서 어느 특정 맥락에서 요청되는 능력이나 자질이라 할 수 있는데

27) R.K. Heck(1931), 『그리스철학과 신: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에서 신개념의 역사』, 이신철 역(2011), p.38(김한(2013), 『일리아스』에 나타난 호메로스의 신들, 『영어권문화연구』 6(1), p.120에서 재인용).

28) 호메로스, 천병희 역(2015b), p.49.

29) 김한(2013), p.107.

30) ‘춤’ 혹은 ‘춤추다’는 『일리아스』 제3권 394행(p.117), 제13권 637행(p.395), 730행(p.398), 제15권 508행(p.449), 제16권 180행(p.468), 617행, 618행(p.486), 제18권 494행(p.548), 572행(p.552), 594행(p.553), 603행(p.554). (괄호안 쪽수는 호메로스, 천병희 역(2015a)의 페이지 수).

‘무도장’은 제9권 478행(p.274), 제18권 590행, 593행(p.553), ‘무도회’는 제3권 393행(p.117).

31) ‘춤’ 혹은 ‘춤추다’는 『오딧세이아』 제1권 151행(p.32), 421행(p.44), 제8권 248행, 252행(p.197), 262행(p.198), 370행(p.202), 378행(p.203), 제17권 605행(p.427), 제18권 194행(p.437), 304행(p.441), 제21권 429행(p.509), 제23권 134행, 145행(p.538), 146행(p.539), 298행(p.545).

‘무도장’은 제4권 634행(p.120), 260행, 264행(p.198), 제11권 256행, 265행(p.274), 580행(p.290), 제12권 4행(p.295), 318행(p.308), 제13권 415행(p.332), 제15권 1행(p.359), 제24권 468행(p.569).

‘무용수’는 제8권 250행(p.197), 383행(p.203). (괄호안 쪽수는 호메로스, 천병희 역(2015b)의 페이지 수)

32) Liddle, Henry George, Scott, Robert(1996), *A Greek English Lexicon*(김현(2013), 『아레테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비교문화』 61, pp.39-71에서 재인용).

이 서사시의 플롯이 전쟁터인관계로 춤을 잘 추는 기술이나 능력은 전쟁터에서 빼어남이나 탁월함을 보여주는 행위임과 동시에 귀족 전사에게 요구되는 ‘아레테’였다고 할 수 있다.

1. 『일리아스』에서의 춤

『일리아스』에서 춤이 처음 언급되는 장면은 아프로디테가 헬레나에게 파리스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때이다. “알렉산드로스³³⁾의 얼굴과 옷이 아름다움으로 빛나고 있어요… 적과 싸우다 온 사람이 아니라, 무도회에 나가려는 사람이나 춤을 추고 나서 이제 막 앉은 사람이라 생각하실 거예요.”³⁴⁾ 파리스는 헬레나 못지않게 아름다운 미남인데 여기서 춤은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에 의해 그의 아름다움이 비할 데 없이 최상의 상태임을 비유하기 위해 쓰인다. 이는 인간이 춤을 추고난 뒤 혹은 춤출 때 가장 아름답다는 일반적인 경험에서 유추되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좀 더 나아가자면 춤의 인간가치가 바로 미라고 주장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즉 춤은 인간을 아름답게 한다는 사실이다. 춤은 신이 인간에게 내린 능력이라는 생각은 트로이군의 치열한 전쟁터에서의 대화에서 나타난다. 트로이군 중에서 헥토르 다음으로 용맹한 장수 폴뤼다마스는 “헥토르여! … 신이 그대에게 전쟁술을 내리신 까닭에 그대는 계략에서도 남들보다 뛰어나기를 바라고 있소. 하나 그대는 결코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가질 순 없을 것이요. 신은 이 사람에게에는 전쟁 술을, 저 사람에게에는 춤을, 또 다른 사람에게에는 기타리스³⁵⁾와 노래를 주셨소. 또 어떤 사람에게는 … 탁월한 분별력을.”³⁶⁾ 이 수사는 춤의 자질은 신으로부터 인간에게 주어지는 특수한 능력임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 여기서 언급되는 신이 내려준 자질들은 소위 전사로서 필수적인 자질로 보아도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춤이 전쟁술 다음으로 으뜸의 열거대상 순위에 있다는 것이다. 고전그리스기에 전술대형을 춤으로 가르쳤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그 중요성의 순서라고 보아도 그리 과한 주장은 아닌듯하다.

춤의 능력이 훌륭한 전사에게 요구되는 자질 혹은 아르테임을 보여주는 장면은 위기에 처한 그리스군이 반격을 하면서 아프로디테의 아들이자 그리스 장수인 아이네이아스가 적군의 뛰어난 창수인 메리오네스를 향해 청동 창을 던졌으나 맞히지 못하자 분개하면서 말하는 대목이다. “메리오네스여! 비록 그대 춤을 잘 춘다고 해도 내가 그대를 맞혔더라면 내 창은 당장 그대의 춤을 영영 멈추게 했으리라.”³⁷⁾ 이 수사의 맥락은 그리스에서 가장 용맹한 장수가 적군 장수의 춤 잘 추는 능력과 그 명성을 익히 알고서 이를 시기하는 속내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 서사 전체에서 함축된 의미는 용맹을 떨치고 명예를 남기는 것이 목숨보다 중하고 삶의 목적인 그리스 전사들에게 있어 춤을 잘 추는 능력 역시 널리 칭송받고 누구나 갖추기를 바라는 것이어서 하나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대’ 아이네이아스조차도 부러움을 갖는 자질이라 추론해볼 수 있다.

춤이란 용어가 전쟁터와 일상에서 흔히 쓰였던 생활어였음을 보여주는 장면은 그리스군이 트로이군에 의해 밀려나 위급한 상황에서 아킬레우스 다음으로 용감하고 당당한 장수 아이아스가 그리스군에게

33) 파리스의 다른 이름.

34) 호메로스, 천병희 역(2015a), p.117.

35) 호메로스시대 사용되던 현악기. 3-5현악기로 추정되고 훗날 7현악기 류라(Lyra), 기타라(Kithara)로 발전된다. 여기서 는 악기를 다루는 능력을 주었다는 뜻이다.

36) Ibid., pp.398-399.

37) Ibid., p.486.

힘과 용기를 북돋우려하는 말에서 나온다. “헥토르가 전 백성들을 격려하는 소리가 들리지도 않소? 그는 춤추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라고 명령하는 것이오.”³⁸⁾ 이 말의 맥락은 트로이군의 기세가 강대함을 설명하기 위해 쓴 비유인데 트로이군의 장수 헥토르가 성을 지키기 위해 전 백성에게 전쟁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데 이는 춤추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다. 이는 역으로 춤은 전사뿐 아니라 백성 누구나가 출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했으며 언제나 요구되는 능력이었다는 사실의 증거로 볼 수 있다. 나아가 트로이군의 전투적 위세를 표현하는 대목에서도 춤의 비유가 나온다. “사람이란 무슨 일이나 물리게 마련입니다. 잠에도, 사랑에도, 달콤한 노래에도 그리고 즐거운 춤에도, 이런 것들은 전쟁보다 훨씬 더 오래 즐기고 싶은 일이어도 말입니다. 하나 저 트로이아인들은 전투에도 물리지 않는 자들입니다.”³⁹⁾ 여기서 춤은 인간이 잘 살아가기 위해 즐겨 추구하는 근원적 가치들 그리고 행복 혹은 좋음에 향한 행위들 중의 하나로 사랑, 전쟁과 함께 대등하게 하나의 세트에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그들의 인생 가치 중 하나였다.

『일리아스』에 등장하는 총 11번의 춤 언급 중 4번⁴⁰⁾이 제 18권 무구제작에 집중되어있으며 여기서 춤 동작과 안무대형에 관한 상세하고 전문적인 묘사가 나온다. 18권은 아킬레우스의 방패제작과 그의 형상을 묘사하고 있는데 앞서 얘기했듯이 이렇듯 신이 만든 훌륭한 방패는 신적인 영웅만이 가질 수 있으므로 총 503행 26쪽에 걸친 서술은 근본적으로 아킬레우스의 용맹함과 영웅적 능력을 묘사하는 수사라 볼 수 있다. 이 방패로 아킬레우스는 헥토르를 죽여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 제우스와 헤라의 아들로 불과 대장장이의 신 헤파이스토스 왕에게 아킬레우스의 어머니 테티스가 “방패와 투구와 복사뿐 뒷개가 달린 아름다운 정강이받이와 가슴받이”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다. 이중 방패에 어떤 형상을 그려넣었는가를 서술하는데 총 131행 7쪽⁴¹⁾에 걸친 묘사로 18권이 끝난다. 헤파이스토스가 만든 것 중 대표명작으로 꼽히는 아킬레우스의 방패에는 당시 호메로스와 고대 그리스인들의 우주관과 인생관 즉 삶의 모든 측면을 대변하는 문명의 축소판이 그려져 있다. 방패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겹겹이 띠를 이루며 당대 그리스인들이 이해한 바의 세계관과 그 속의 안정된 삶의 질서를 집어넣은 것으로 해석한다.

방패 제일 안쪽에 해와 달, 지구, 하늘이 있고 그 외연에 아름다운 두 도시, 그를 둘러싼 경작지 그리고 왕의 영지와 포도밭과 가축 떼가 있고 그리고 가장 외연에 무도장에서 아름다운 젊은 남녀가 구혼선물을 받고 ‘서로 손목을 잡고 춤추고’있는 그림을 그려넣었다. 방패 맨 바깥쪽에는 바다가 그려져 있다. 춤은 결혼식과 잔치가 벌어지는 ‘아름다운 두 도시’에서 축혼가와 함께 ‘젊은이들은 빙글빙글 돌며 춤을 추었고’, 포도밭에서 한 소년이 리노스의 노래를 부르고 처녀총각들이 ‘그 가락에 발을 맞춰 노래하고 환호하고 춤추고 있었다.’⁴²⁾ 이 젊은이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치장하였는지 역시 길게 묘사되는데 아름다운 화관을 쓴 처녀들과 은띠에 황금 갈을 찬 총각들은 마치 도예공의 재빠르게 회전하는 녹로처럼 “능숙한 걸음걸이로 경쾌하게 원을 그리며 돌았고 또 때로는 줄지어 서로 마주 달려가곤 하였다.”⁴³⁾ 이들 서술에서 짐작할 수 있는 춤은 템포나 스피드가 굉장히 빠르고 원형 대형과 2열 라인 대형이었음을 짐작할

38) Ibid., p.449.

39) Ibid., p.395.

40) 『일리아스』에 나오는 총 3번의 ‘무도회’ 중 2번이 제 18권에서 언급된다.

41) Ibid., pp.548-554.

42) Ibid., p.552.

43) Ibid., p.554.

수 있다. 호메로스는 이 “사랑스러운 춤을 많은 군중들이 둘러서서 ‘재미나게’ 구경하고 있었다”⁴⁴⁾고 한다. 인간세계의 아름다운 두 도시가 소개되자마자 언급되는 결혼식과 축제와 춤의 언급 그리고 무도회에서 빠르고 숙련된 춤을 추는 젊은이의 모습으로 완성되는 방패의 그림은 행복한 인간사회의 번성함에 대한 염원과 우주적 조화를 이룬 질서 있는 인간 삶의 열망이라 볼 수 있고 그리하여 춤이 함축하고 있는 평화를 상징하고 있다고 본다.

2. 『오딧세이아』에서의 춤

호메로스가 『일리아스』에서 그리고 있는 것은 완전한 우주와 그와 조화를 이룬 인간의 삶이었고 아킬레우스의 방패에서 춤은 그 안정적이고 총체적인 삶을 감싸는 토퍼처럼 쓰였다. 반면 『오딧세이아』는 향해 중 풍랑을 맞아 괴물들과 이상한 나라의 기이한 경험을 한다는 선원 모티브로서 어느 해양민족에게서나 흔히 발견되는 것이다. 이런 바다 건너로의 여행의 본질은 세계와 인간에 대한 호기심에서 비롯되었기에 신이 아닌 인간 스스로가 선택한 모험과 투쟁이 더 빛난다. 같은 영웅서사시이지만 『오딧세이아』는 『일리아스』의 영웅세계보다는 상대적으로 일상의 세계로 내려앉아 신들의 등장도 적어지고 사건들이 일상의 인간적 지평에서 전개된다. 『일리아스』에서 아킬레우스나 헥토르 같은 대 영웅이나 아프로디테와 같은 신 혹은 호메로스의 입을 통해 언급되던 춤은 『오딧세이아』에서 영웅들과 귀족자제들이 직접 추고 전문적인 실력을 뽐내고 ‘무용수’라 불림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무도장이 있는’이라는 수식어가 문명이 발달된 대도시를 지칭하는 수식어로 기능하는 등 일상적인 삶의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오딧세이아』에서 ‘춤’과 ‘무도장’의 언급은 『일리아스』보다 훨씬 많은데 주목할 만한 장면은 오딧세우스가 파리아케스족 나라에 머물 때 오딧세우스의 탁월한 능력을 보고서 오딧세우스에게 돌아가면 다른 영웅들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하며 자신들을 소개하는 대목이다. ‘우리는… 가장 훌륭한 뱃사람들이지요. 우리에게 늘 소중한 것은 잔치와 키타리스와 춤과 새 옷 입기와 따뜻한 목욕과 잠자리 같은 것이요. 자, 파리아케스족의 가장 훌륭한 무용수들이여! 너희들은 유희를 시작하라. 저 나그네가 고향에 돌아가면 우리가 향해와 경주와 춤과 노래에서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능가하는지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말이다.’⁴⁵⁾ 오딧세우스에게 자기 부족의 탁월함을 널리 알려주기를 바라면서 자신들이 날랜 경주선수들이며 훌륭한 무용수임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자신들의 탁월함(아레테)을 자기 부족들의 달리는 능력과 춤추는 능력으로 즉 몸적인 차원에서의 뛰어남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즉 남자들에게 기대되는 탁월함의 증거로서 힘, 용기, 날렵함이나 외모적 아름다움을 춤과 관련지어 비유하고 있는 수사구조인데 이는 두 서사시 전반에서 발견된다. 이는 “호메로스의 영웅서사시 안에서 ‘아레테’는 ‘몸’을 중심으로 규명되었으며,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거치면서 ‘아레테’가 인간의 영혼 또는 ‘정신’을 중심으로 규정되었다”⁴⁶⁾는 김현의 주장에도 부합된다. 비유의 순서 역시 『일리아스』에서 신이 인간에게 내려준 탁월한 재능으로서의 춤이 전쟁술 다음으로 언급되듯이 여기서는 전쟁 상황이 아닌 지라 항해술 다음으로 춤의 능력이 버금가는 중요성의 순위가 된다. 그리고 손님에 대한 최고의 환대를 춤을 통해서 자랑스레 표하고 있다. “무용에 능한 이제 갓 성년이 된 젊은이들이 그를 에워싸고는 훌

44) Ibid.

45) 호메로스, 천병희 역(2015b), p.197.

46) 김현(2013), p. 41.

룻한 무도장의 바닥을 발로 찼다. 오딧세우스는 그들의 현란한 발놀림을 보고 마음속으로 감탄을 금치 못했다.”⁴⁷⁾ 여기서 춤의 묘사는 이제 기량의 차이가 현저해지고 기교와 대형이 들어오는 원숙한 경지에 이른 춤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며 오딧세우스는 스텝의 기교에 감탄하고 있다.

『오딧세이아』에서 춤이 귀족들의 생활의 일부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는 제 1권서부터 23권까지 지속적으로 발견된다. 제1권이 시작되자마자 오딧세우스의 집에 포진한 구혼자들이 식사를 한 뒤 ‘노래와 춤으로 잔치의 극치’⁴⁸⁾에 이른다. 구혼자들은 으레 직업가인(aoide)들의 노래반주에 맞추어서 저녁 식사이후 초저녁부터 밤이 깊어져 잠자리에 들 때까지 춤추었다. “구혼자들은 춤과 즐거운 노래로 흥겹게 놀며 저녁이 되기를 기다렸다. 그들이 흥겹게 노는 사이 어두운 밤이 다가오자, 그제서야 그들은 잠자리에 들려고 저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⁴⁹⁾ “구혼자들은 춤과 노래를 즐겼으니 어느새 저녁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⁵⁰⁾ ‘구혼자들은 춤과 노래를 즐기며 저녁이 오기를 기다렸다.’⁵¹⁾ 그리고 이들 사이에서는 뛰어난 춤 솜씨로 명망을 얻은 사람들도 있으며 그 기교의 수준이 빼어나다. “할리오스와 라오다마스에게 단둘이서 춤추라고 알키노오스가 명령했으니, 그들에게는 누구도 맞수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자줏빛 공을 손에 쥐더니 한 사람이 몸을 뒤로 젖히고 그늘을 지어주는 구름을 향해 던지면, 다른 사람은 대지에서 높이 뛰어 올라 발이 바닥에 채 닿기도 전에 가볍게 그것을 받았다.”⁵²⁾ 이들은 서로 공을 주거나 받거나 도약적인 춤을 추고 이에 박자를 맞추며 호응하는 젊은이들의 큰 소음이 있었다 한다. 이를 보고 오딧세우스는 “그대의 무용수들이야말로 가장 훌륭하다고 장담하시더니 과연 말씀대로입니다. 보고 있자니 놀라울 따름입니다.”⁵³⁾ 춤 솜씨는 종족의 탁월함을 즉 아레테를 과시하는 중요한 능력임을 알게 한다. 당시의 춤의 탁월함의 척도로 스텝의 스피드와 정교함 그리고 도약의 높이와 소도구(공)의 처리 등을 글에서 뽑아낼 수 있겠다.

무용수란 단어는 『일리아스』에는 없었는데 『오딧세이아』에 처음 등장한다. 이는 춤 기술의 발전과 이에 따른 평가와 전문화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 무용수라 불린 이들은 모두 귀족 자제들로서 연회에서 어울려 춤추다가 무리사이에서 누구의 춤 기교가 뛰어나다 인정받는 것은 명예와 존경을 받는 일이었다. 이들의 춤을 반주하는 직업가인들도 『일리아스』에는 등장하지 않고 『오딧세이아』에서 처음 나오는데 이들의 신분은 굳이 어느 종족의 빼어난 젊은이가 아니라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이름이 널리 알려진 자들로서 신분이 딱히 귀족은 아닌 것 같지만 당시의 무용수개념보다는 훨씬 전문화가 된 상태로 보인다. 『일리아스』에서는 아킬레우스가 직접 포르밍크스를 키며 노래하던 것이 『오딧세이아』에서는 제1권서부터 직업적인 가인이 등장하고 있다. 그중 이름이 서사시전반에 나오는 소문난 가인 페미오스⁵⁴⁾는 키타리스를 연주하며 감미로운 노래로 춤을 반주한다.

무도장은 『오딧세이아』에서 ‘넓은 무도장이 있는 엘리스’, ‘아름다운 무도장이 있는 파노페우스⁵⁵⁾’,

47) 호메로스, 천병희 역(2015b), p.198.

48) 호메로스, 천병희 역(2015b), p.32.

49) Ibid., p.44.

50) Ibid., p.427.

51) Ibid., p.447.

52) Ibid., pp.202-203.

53) Ibid., p.203.

54) 페미오스는 당시 이타케의 직업가인으로 ‘칭찬하는 자’라는 뜻이다. Ibid., p.33.

55) 여기서 엘리스, 파노페우스, 라케다이몬 등은 모두 도시 이름이다.

‘넓은 무도장이 있는 도성 앞’ 등으로 문화가 번성한 대도시를 뜻하는 정형 수식어로 쓰인다. 오딧세우스의 아들은 아버지의 생사를 수소문하기 위해 ‘넓은 무도장이 있는 엘라스’로 가고 오딧세우스가 끔직한 괴물과 요정과의 사투 끝에 당도한 나무랄 데 없는 섬에는 ‘요정들의 아름다운 무도장과 집회장들’이 있었다. 또한 ‘넓은 무도장이 있는 라케다이몬’은 곧 이어 ‘고귀한 라케다이몬’이라 불리는데 여기서 그 도시문화의 찬란함이 고귀하다는 뜻으로 짐작된다. 즉 무도장이 있다는 것은 그 곳의 생활수준과 문화적 수준이 높다는 의미와 함께 춤이 당대 문화의 한 축 아니면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무도장이 큰 도시 혹은 문명이 발전된 도시를 뜻하는 수식어로 쓰이는 것과 『오딧세이아』 전반에 걸쳐 귀족 자제들인 구혼자들이 초저녁부터 춤추기 시작하는 것은 춤이 그들의 삶에서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였음을 뜻한다. 아울러 문명화된 삶의 첫 번째 척도로서 춤을 추는 무도장을 으뜸 수식어로 내세우는 경우는 이것이 처음이자 춤의 인간적 가치를 증빙하는 으뜸의 증거인 것 같다. 그리고 오딧세우스의 성에도 무도장이 있었는데 오디세우스가 구혼자들에 대한 복수를 다짐하면서 “나중에 춤과 포르밍크스로 다른 놀이를 즐기자꾸나. 그것들이야말로 잔치의 절정이니까.”⁵⁶⁾라고 자신의 아들에게 말한 뒤 구혼자들을 모두 죽이는 22권과 23권에까지 가장 많이 언급된다.⁵⁷⁾ 오딧세우스에게 죽임을 당한 구혼자들의 얘기인 제 24권 저승속편에서도 죽은 사람들의 환영이 사는 나라에서 구혼자들의 혼백이 “넓은 무도장이 있는 도성 앞에 집결”⁵⁸⁾한다. 이렇듯 신의 세계인 요정의 나라에도 저승세계와 인간세계를 모두 아울러 이들의 사고 속에 춤은 빠질 수 없는 뛰어난 인간 혹은 신이 갖추어야 할 행위이자 덕목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보통 축제와 잔치의 절정으로 춤이 추어졌는데 『오딧세우스』의 수사에서 춤은 경주나 다른 놀이나 집회와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파이아케스족은 오딧세우스에게 자신들의 뛰어난 춤을 보이기 위해 진행요원들이 “무도장을 반반하게 고르고 경기를 위해 널찍한 원을 보기 좋게”⁵⁹⁾ 만든 뒤 가운데의 포르밍크스를 연주하는 가인을 에워싸고 훌륭한 무도장 바닥을 차면서 춤추었다. 그러므로 춤추는 무도장에서 경주나 재주부리기, 여러 종류의 시합도 했던 것이다. 그리고 오딧세우스가 구혼자들을 자신의 궁전 홀에다 모아놓고서 보복을 하는 곳도 곧 이들이 춤추던 무도장이자 일종의 집회장으로 쓰이고 있다. 구혼자들의 능력을 검증하는 시합을 하는 곳도 그들이 죽어가는 곳도 바로 그 메인 홀 즉 무도장인 것이다.

하지만 춤이 인간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함축하는 경우도 『일리아스』만큼은 아니지만 『오딧세이아』에서도 역시 발견된다. 오딧세우스의 아내 페넬로페가 귀향하여 거지로 위장하고 있는 오딧세이아를 만날 때 아테나 여신이 “아름다운 화관을 쓴 미의 여신이 카리스여신들의 사랑스러운 춤을 향해 다가갈 때 바르는 것과 같은 불멸의 미안수로 그녀의 고운 얼굴을 깨끗이 해”⁶⁰⁾준다. 카리스는 우미(grace)의 여신이고 ‘춤을 향해 다가간다’란 춤출 때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미의 여신조차도 춤출 때 가장 아름답고 싶고 또한 그 결과 아름답다라는 함의를 품고 있는 수사적 문맥으로서 그렇다

56) Ibid., p.509.

57) 각주 56의 제 21권 마지막의 다짐을 포함해서 총 15번 중 5번의 춤 언급이 제22권, 23권까지에 등장한다. 실질적으로 춤의 축제를 벌인다.

58) Ibid., p.569.

59) Ibid., p.198.

60) Ibid., p.437.

면 미의 비법이 되는 미안수의 에센스가 바로 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문장의 뜻은 춤출 때 아름다워지는 것 같은 효과를 지닌 미안수를 발라주어 페넬로페가 아름다워지도록 했다는 말이다. 춤의 효과를 넣은 미안수를 바른 페넬로페의 아름다운 모습은 그의 ‘구혼자들의 무릎을 그 자리에서 풀리게 하고 사랑에 빠지게’⁶¹⁾ 하였다.

V. 나가며

호메로스가 자신의 두 편의 영웅서사시에서 펼쳐내는 춤의 의미를 종합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춤은 신이 인간에게 부여하는 일종의 아레테 혹은 전사로서의 탁월함 혹은 귀족적 탁월함을 지시하는 대상으로서 춤을 잘 추는 기술이나 능력은 전쟁터에서 빼어나거나 탁월함을 보여주는 행위임과 동시에 귀족 전사에게 요구되는 ‘아레테’였다고 할 수 있다. 춤은 전사뿐 아니라 백성 누구나가 출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했으며 언제나 요구되는 능력이었다. 춤은 인간이 잘 살아가기 위해 즐겨 추구하는 근원적 가치들 중의 하나로 항시 사랑, 전쟁 등 그리스인들의 삶과 행복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들과 함께 세트로 거론되었다. 따라서 호메로스의 생각에서 춤은 인간이 행복이나 좋은 것을 추구하는 행위로서 고대 그리스인들의 인생 가치 중 하나였다. 또한 다양한 수사적 맥락에서 춤은 인간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빈번히 드러내고 있다.

『일리아스』에서 그리고 있는 것은 완전한 우주와 그와 조화를 이룬 인간의 질서 있는 삶이었고 아킬레우스의 방패에서 춤은 우주적 조화를 지닌 아름다운 도시에서의 평화로운 인간 모습과 그 안정적이고 총체적인 삶을 감싸는 평화를 상징하는 외피였다. 호메로스의 글에서 고대 그리스인들은 날렵함이나 외모적 아름다움 즉 생김새와 몸매의 탁월함을 지시하는 데 춤을 끌어들이는 수사를 보이고 있기에 남녀를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의 탁월함을 몸의 차원에서의 뛰어난으로 설명하고 있다. 『오딧세이아』에 이르러서는 춤은 일상 속에 더 깊이 파고들어 삶과 문명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되고 무도장이 도시생활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되고 사회적 지표가 되며 그 결과 무용수로 명성을 떨치게 되는 귀족자제들이 등장하면서 춤의 기술이 한층 발전되었다. 두 편의 서사시 전반에 걸쳐 귀족자제들이나 전사들이 춤을 잘 춘다고 인정받는 것은 명예로운 일이며 존경 받는 일이었다. 그들 중의 일부가 무용수라고 불리어지게 되는 것도 도시마다 무도장이 생겨나고 그곳에서 춤과 경주와 다른 시합들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공공의 주목을 거치며 사회적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춤과 무도장이 그리스인들의 삶에서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서 이들은 문명화된 삶의 첫 번째 척도가 됨과 동시에 춤의 인간적 가치를 증빙하는 으뜸의 증거가 되었다. 호메로스의 진술 속에는 춤이 신의 세계인 요정의 나라에서나 인간세계 혹은 혼백의 세계인 저승세계의 구분 없이 신이나 뛰어난 인간과 그의 혼백이 갖추어야 할 행위이자 덕목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

호메로스의 두 서사시는 ‘고대 그리스인들의 사회에서 교육의 실천과 교육방법연구의 주요 기초자료로서 활용되었을’⁶²⁾ 뿐 아니라 ‘교육과 종교와 도덕과 놀이 등등 그리스인... 그리스인의 세계를 구성하

61) Ibid., p.438.

62) 김한(2013), p.107.

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작품이며… 그리스 정신 자체를 담고 있는 작품⁶³⁾으로 그리스 정신의 교과서라 할 만 하다. 따라서 이 서사시에 드러난 호메로스의 춤에 대한 생각은 기원전 4세기 초 다음과 같은 그리스 경구로 계승되어 이어진다. ‘춤출 줄 모르는 자는 문화인이 아니다(apaideutos achoreutos).’⁶⁴⁾ 플라토는 자신의 책 『법률』(Nomoi) 2권에서 이 아테네 격언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문화인이 아니다(apaideutos)란 ‘교육받지 못하고, 무식하고, 천박하고, 훈육 받지 못하고, 비사교적이고 비도덕적이며 지성이 발달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즉 춤출 줄 모르는 자는 교육받지 못한 미개인이란 뜻이다. 이 보다 더 중요한 춤의 평가는 이후의 역사에서도 발견된 것이 없다. 본 연구자는 두 서사시에서 토로된 호메로스의 춤에 대한 생각의 본질이 바로 이 한 문장에 압축되어 있다고 본다. 호메로스가 생각하는 춤의 기능과 의미가 바로 이 경구에 담긴 생각의 기원이자 토대다. 이 경구로 대변되는 호메로스의 춤 생각은 기원 전 4세기 초 플라토의 아카데미가 개설될 당시 그리스의 일반인들이 지성인에서 가장 미천한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알고 있던 상식적인 생각이었으며 따라서 누구나 삶의 지침으로 되새기는 아테네 격언이었다.

63) 서동욱(2013), p.45.

64) James Miller(1986), *Measures of Wisdom: The Cosmic Dance in classical and christian Antiquity*(Toronto: Univ. of Toronto Press), p.14.

■ 참고문헌

- 김 현(2013). 『일리아스』에 나타난 호메로스 신들. 『영어권 문화연구』, 6(1): 107-130.
- 김 현(2013). 아레테를 어떻게 이해해야할 것인가?-호메로스로부터 아리스토텔레스까지. 『비교문학』, 61: 39-71.
- 서동욱(2013). 그리스인의 환대-손님으로서 오딧세우스. 『철학논집』, 32: 39-70.
- 정준영(2012). 서사적 지평에서 바라본 호메로스적 아테(ate)-『일리아스』를 중심으로. 『서양고전학연구』, 48: 5-48.
- 천병희(1981). 호메로스의 작품과 세계. 『독어문학』, 26(1): 198-218.
- 호메로스. 『일리아스』. 천병희 역(2015a). 서울: 숲.
- _____. 『오딧세이아』. 천병희 역(2015b). 서울: 숲.
- R.K. Heck(1931). 『그리스철학과 신: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에서 신개념의 역사』. 이신철 역(2011). 서울: 도서출판 b.
- James Miller(1986). *Measures of Wisdom: The Cosmic Dance in classical and christian Antiquity*. Toronto: Univ. of Toronto Press.
- M. L. West(1999). The Invention of Homer. *The Classical Quarterly*, 49(2): 364-382.
- R. B. Rutherford(1986). The Philosophy of the Odyssey. *The Journal of Hellenic Studies*, 106: 145-162.
- Yoav Rinon(2008). A Tragic Pattern in the Ilia. *Harvard Studies in Classical Philology*, 104: 45-91.

논문투고일 2017. 9. 13
심사일 2017. 9. 28
심사완료일 2017. 10. 6

A Study on the Meanings of Dance in *Ilias* and *Odysseia*

Kim, Malborg
Professor,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s the meanings of dance which appeared in the *Ilias* and *Odysseia* written by Homeros. *Iliad* is the oldest extant work of the western literature and *Odysseia* is the second-oldest. These two epic poems are the origin of the Greek Spirit and used as the text for Ancient Greeks' education and life. This study analyzed the meanings of dance and dance related terms such as dance hall, dancer, dancing party in the rhetorics of the poems. Dance was the arete for noble warriors and was thought as the central values in life with happiness, love, beauty, the art of war. And this study argues Homeros' dance ideas expressed in his poems are the origin and base of the Greek epigram 'apaideutos achoreutos' (a person is without culture who is without the dance) of the 4C BC. Plato explained what this epigram meant with vigor in the second book of *Nomoi*.

Keywords: Homer(호메로스), Dance (무용), Ilias(일리아스), Odysseia(오딧세이아), Dance Hall(무도장)